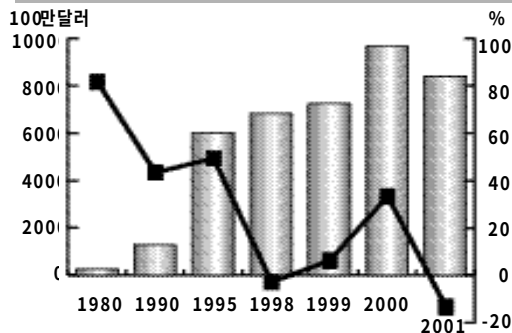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산자부...

국내 NCC(Naphtha Cracking Center) 가동석유화학기업을 현재 7개에서 3개 안팎으로 줄이는 대형화 방안이 석유화학 산업계 자율로 추진된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Dow Chemical이 Union Carbide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에틸렌 생산능력이 800만톤을 넘어선마당에에틸렌 50만톤안팎의크래커를 가동하면서경쟁력을 유지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기때문이다.

1997년 말 IMF를불러왔을 당시8개이던 NCC 가동 석유화학기업은현재 7개이다. 1997-98년IMF 위기때국내 석유화학산업의부실원인에대해많은말들이나왔고, 당시에도 NCC 가동석유화학기업을단지별로통합해 3-4개줄이는방안이제시됐다. 하지만, 한화석유화학과대림산업이 기초유분 부문을 합병해 여천NCC를 설립해 에틸렌 생산능력을 130만톤으로 확대한것이고작이었다.

석유화학 수출추이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앞장 서 현재 7개인 NCC 가동 석유화학기업을 에틸렌 생산능력을 150만톤 이상 확보한 3개 안팎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말은 자율이지만 속내는 강요라고 볼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없으니 자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반갑지 않은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것이다.

그러나석유화학산업계자율의 인수합병(M&A)에왜산업자원부가 자꾸 끼어드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1998년에도 6대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삼성중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을 통합하고 일본 Mitsu사사 컨소시엄에 매각하려 시도했지만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혀 실패했다. 당시에도전국경제인연합회가중간에서역할했지만실은청

와대의 DJ가전면에나서강요했었다.

헌데 또다시산업자원부가 전면에서나서석유화학 통합(M&A)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나서면 될 일도 안된다는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이 COEX Intercontinental 호텔이라는거창한 장소에석유화학기업대표 12명을포함해산·학·연·관관계자 30여명을모아놓고말이다.

대표성이 의심스럽고 전문가로 볼 수도없는 인물들을모아놓고 [201년석유화학산업비전및발전전략회의]를논의하는자리에서...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방안을논의하는자리에전문가는없고, 산·학·연·관이 공동작성했다는발전전략도구체안이발표되지않았으니알아볼수있는일일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2001년 매출액의 2%에서 2010년에는 4-5%로 높이고 고부가가치화와 신소재 개발을통해석유화학제품의특화비중도 10%에서 30%로끌어올리기로했다는것도말이안되는소리일뿐이다. 어느석유화학기업이 R&D투자를하고싶지않아서기피하고, 범용제품위주로팔고싶어서그러하겠는가말이다.

더군다나석유화학기업들의사업교환이나생산품목의통합을통한전문화를도모하고, 호남석유화학과LG석유화학이 2002년 3월 나프타 공동구매를 위해 제휴했듯이 기초원료의 공동구매를 유도하며, 합성수지 부문의 해외 공동판매 등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1994-96년에는 석유화학 카르텔을 부추기고 수수방관하더니, 이제는 수출카르텔까지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나서수출카르텔을조장하고있으니중국의 반발에손도쓰지못하고당하고만있을수밖에 없다는것을왜모르는가. 산자부공무원들의콩고물맛보는재미가보통이아닌모양이다.

2000년석유화학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외치던 산자부가 이제와서는 석유화학 수출이 2001년 84억달러에서 2010년 93억달러로 연평균 1.1% 늘어나는데 그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1년 4.9%에서 2005년 4.7%, 2007년 4.6%, 2010년 4.4% 등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고하니아리니가 아닐 수없다. 2010년국민1인당GDP 3만달러는왜 그렇게 고집하는가?

산업자원부와재정경제부의경제업무를통합해경제산업부로개편함으로써거시적경제산업정책을펼칠수있도록해야하는
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화학저널 2002/7/8>